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9 월 3 주차

- 10일 ECB 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통화 긴축 재부각. 올해 6~7월 증시와는 다를 4가지 요인
- IFA 2026 화두 '피지컬AI' . 중국 기업의 약진. 오라클, AI 수요 논쟁 반박. 블루아울 캐피탈, 데이터센터 리츠 상장 검토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미국주식] 오라클, [글로벌리츠] 블루아울 캐피탈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운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금리, 유가 부담과 AI 속도조절론에 3일 연속 하락. 반전 트리거는?

- 기정사실화된 9월 금리인상. 국제유가 상승과 AI 속도조절론으로 위축된 투자심리
- KOSPI 6,600선 지지력 테스트. 호르무즈 회의 재개 및 9월 FOMC 점도표 확인
- 반도체 위주의 전반적 하락. 업종별 차별화 장세 전개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금리, 유가 부담과 AI 속도조절론에 3일 연속 하락. 반전 트리거는?

- 기정사실화된 9월 금리인상. AI 속도조절론으로 위축된 투자심리
- KOSPI 6,600선 지지력 테스트. 호르무즈 회의 및 FOMC 점도표 확인
- 반도체 위주의 전반적 하락. 업종별 차별화 장세 전개

기정사실화된 9월 금리인상. AI 속도조절론으로 위축된 투자심리

미국 증시 선방에도 불구하고 KOSPI는 3.14% 급락 출발, 미국 8월 근원 CPI가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예상치(0.2%) 상회. 이는 FOMC 인상 확률이 86~87%에 달할 정도로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5% 터치

호르무즈 통항 회의가 연기. 사우디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인해 브렌트유 108달러 재돌파한데 이어 AI 개발 속도조절 발언으로 반도체 투자심리 급랭,

AI개발속도 조절 ≠ 투자 사이클 둔화. 심리주도 하락은 저가매수 기회

오늘 급락의 핵심 팩터는 AI 개발 속도 조절 논란. 9월 6일 야쿠프 파호츠키 오픈AI 최고과학자의 에세이("기계 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에 이어, 12일(현지시간)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가 블로그에서 "AI 모델 개선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추가 안전장치 도입을 밝힘. 일론 머스크는 X에 "다리오가 옳다", 샘 올트먼은 "프런티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동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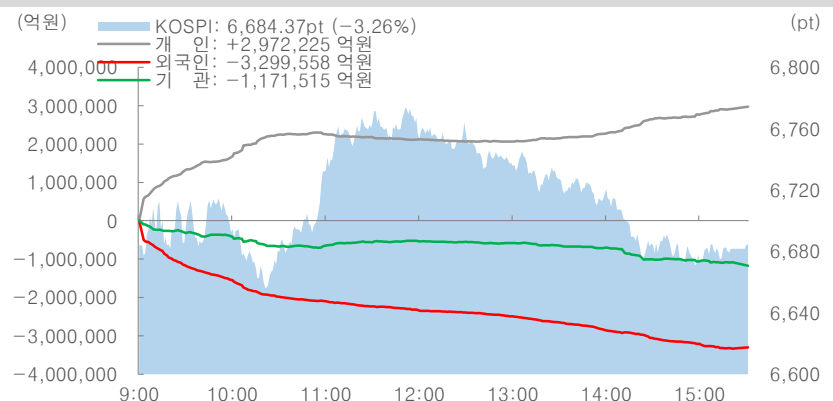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논의가 "AI 개발 중단이 아니라 개발 속도와 안전성 검증을 조절하자"는 성격"이라며 투자 사이클 둔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 즉, 투자 속도 조절이 아닌 개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윤리를 비롯한 보안 시스템 강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

게다가 HBM은 "완판(sold-out)" 상태이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시장의 83%를 점유한다는 점에서 "실적이 아닌 심리 주도 하락"이라고 판단. 개발 속도조절이 "기존 설비의 수익화 단계로 전환할 시간"을 주며 반도체·전력·데이터센터 투자 자체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글로벌X·울스프링·삭소마켓츠의 코멘트도 저가매수 논리를 뒷받침. 오전 장을 지나면서 낙폭을 절반 가까이 되돌리며 양봉 전환

KOSPI 6,600선 지지력 테스트. 호르무즈 회의 및 FOMC 점도표 확인

KOSPI 6,600선 지지 시 분위기 반전 가능성 유효. 핵심 변수로는 1) 호르무즈 회의 재개 여부: 오만 측이 "합의 도출을 위한" 연기라고 밝힌 만큼 재개 일정이 나오면 유가 되돌림 → 시장 안도 요인 2) 9월 FOMC(한국시간 17일 새벽): 25bp 인상은 86%대로 반영. 점도표와 위시 의장 발언, 30년물 반응이 관건. 금리인상 선반영으로 26년, 27년 28년 점도표 수준과 FOCM 이후 10년물 5% 재돌파 여부가 관건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 중 흐름 (9/14)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2026년 9월 3주차

- 글로벌 통화 긴축 재부각. 올해 6~7월 증시와는 다를 4가지 요인
- 오라클, AI 수요 논쟁 반박. 블루아울 캐피탈, 데이터센터 리츠 상장 검토
- 주식 포커스: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오라클, 블루아울 캐피탈

[글로벌전략] 10일 ECB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다시 부각되는 글로벌 통화 긴축. 올해 6~7월과는 다르다

향후 ECB의 금리 인상은 7월 금리 동결(ECB, BOJ)을 통해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글로벌 통화 긴축의 서문이 다시 열리는 것. 하지만 올해 6~7월과 달리 증시 변동성 확대와 주가 하락을 동반하지 않을 것. 우선 6~7월, 8월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증시는 등락 장세(일부 증시는 가격 조정)를 보여와 파급력이 제한될 것. 또한 시기적으로 美 재무부가 장기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국채 바이백 시행, 15일 美 클레리티 법안 표결, 24일 시진핑 주석의 방미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뒷받침하는 일정 대기 중

[신중국전략] IFA 2026 화두 '피지컬AI' . 중국 기업의 약진

9.4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가전·IT전시회 IFA 2026의 화두는 '피지컬 AI(인공지능)' . 피지컬 AI는 기기가 카메라·센서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한 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 장치로 직접 행동하는 인공지능 기술. 5일 '로봇 온 더 런웨이' 에 오른 11개 업체 중 유니트리·애지봇·딥로보틱스 등 7곳은 중국 기업. 전시회 전체에서도 중국 업체의 존재감 확대. 49개국 1,900여 개 참가사 중 932곳은 중국 업체로, 지난해 691곳에서 241곳 늘어 전체의 절반 차지. TV, 로봇청소기 등 생활가전에서 경쟁력을 키운 중국 업체들이 로봇 분야에서 신제품 선보이며 영향력 확대

[미국주식] 오라클(ORCL): 27.1/4분기(26.6~8월) 매출·이익 서프라이즈, 백로그 6,640억 달러로 반등. AI 투자 회수 논쟁의 첫 반박

27.1/4분기 매출 193억 달러·EPS 1.92달러, 컨센서스 크게 상회하며 서프라이즈, 미래 확보한 클라우드 수주잔량 6,640억 달러로 반등, AI 수요 논쟁에 반박. 연간 이익 전망은 8.05→8.10달러로 소폭만 상향, 서프라이즈 대비 절제된 반응. 연 900~950억 달러 자본지출이 현금흐름 압박, 신규계약 둔화 여부 확인 필요

[글로벌리츠] 블루아울 캐피탈, 데이터센터 리츠 상장 검토

블루아울 캐피탈은 약 65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자산을 기반으로 신규 리츠 상장을 검토 중. 올해 5월 블랙스톤도 데이터센터 리츠 BXDC를 상장해 17.5억 달러를 조달, 대형 운용사의 상장 리츠 활용이 확대되는 모습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공모시장 자금을 활용해 기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 리츠 시장에서는 데이터센터 자산의 자본 회수 경로와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는 긍정적 변화로 해석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